

### 엄홍길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16좌 등반

〈1〉 계룡산

전통의 아웃도어 '밀레'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6좌 원정대'의 첫 산행이 지난 25일 계룡산을 시작으로, 16개월 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호남지역 등반 애호가들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16곳 국립공원을 한 달에 한번, 넷째주 금요일(당일) 또는 목·금요일(무박 2일) 산행으로 진행된다.

■ 동화사 주차장~ 남매탑~ 동화사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6좌 원정대'의 첫 산행이 지난 25일 계룡산에서 시작됐다. 350여 명의 원정대원들이 엄 대장과 함께 큰배재를 오르고 있다.

/계룡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신록의 향연... 엄대장과 함께한 원정대는 들떴다

### 바람 벗삼아 산책하듯 3시간

5월 끝자락의 햇빛은 따가웠다. 내리쬐는 빛이 한여름 땀방울 같다. 하지만,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제법 선선해 산행 날씨는 안성맞춤이었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6좌 원정대' 첫 산행지는 우리나라 4대 명산 중 하나인 계룡산(鎭龍山·845m)이었다. 계룡산은 1968년 12월31일에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만큼 산세가 수려하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중 금남 정맥의 끝 부분에 위치한 계룡산은 해발 845.1m의 주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관음봉·연천봉·삼불봉 등 28개 봉우리와 동화사·갑사 계곡 등 7개의 계곡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등반은 동화사 입구 주차장에서 출발해 천장굴과 큰배재, 남매탑을 돌아 동화사를 거쳐 내려오는 3시간짜리 산행 코스로, 비교적 등반하기 좋은 코스였다.

산행은 '세계 최초 8000m 급 16좌 완등 기록'을 갖고 있는 엄홍길 대장을 선두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340여 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함께했다. 엄 대장과 함께 산행을 하는 뜻있는 원정대는 산행 내내 들뜬 기분이었다.

동화사 주차장에서 천장굴을 거쳐 큰배재와 남매탑까지 오르는 3.8km 구간은 모두가 오르막길이다. 오르는 길이 다소 고생스럽지만, 신록과 녹음으로 우거진 계룡산 속살

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르막 길 또한 급경사가 크게 없고, 등산길 모두가 울창한 숲으로 그들이 드리워져 산행 길로는 적당하다.

등반로는 흙길과 돌 계단, 나무 계단을 번갈아 타고 간다. 햇살마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우거진 숲길인데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산행에 큰 도움을 줬다. 등반 전 동화사 주차장에서 내리쬐는 피악볕에 산행 날씨를 걱정했지만, 숲에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바람과 그늘에 원정대의 발길은 더욱 가벼워졌다.

이날 등반 코스의 정상인 남매탑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오색 연등'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원정대를 반겼다.

원정대의 휴식처인 남매탑 주변에서는 "엄 대장님, 엄 대장님"을 애절하게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엄 대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한 원정대원들의 목소리였다.

원정대는 동화사 방면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동화사로 내려가는 길은 자갈과 바위가 많아 하산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작은 자갈이 많아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산객들이 종종 있었다.

동화사의 주변으로 내려오는 계곡은 신록이 피어나는 봄에 으름의 경치를 자랑하며 계룡산 제5경으로 불린다.

3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동화사 길 옆에는 굴피나무와 양버즘나무 등 하늘 높이 치솟은 노거수들이 시원함을 더해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회차 산행은 6월21~22일로, 산행지는 경북 청송군 주왕산이다. 신청접수는 광주·전남·전북지역 밀레 매장지점·백화점·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 ■ 원정대장 엄홍길



### "호남 지역민과 등반 소통 행복"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등산 애호가들과 함께 16곳의 한국 명산을 오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MILLET)'의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등산 애호가들과 함께 16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립공원 16개 봉우리를 오르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 가슴이 설렌다"고 밝혔다.

엄 대장은 밀레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16좌 원정대' 첫날 산행인 계룡산 등반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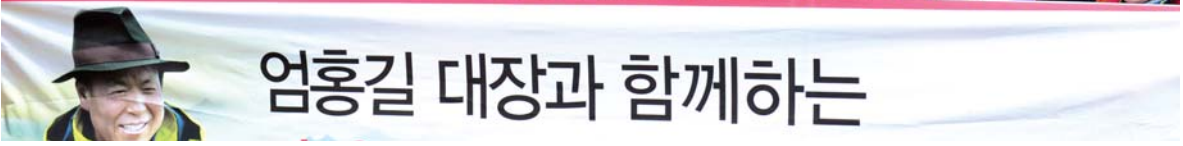
그는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호남 지역민들과 무등산 등반을 자주 했었는데, 또다시 호남 지

역민들과 함께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 더욱 기쁘다"며 "첫 등반인 만큼 즐거운 산행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16번 산행까지 참가자 모두 건강하게 산행을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자신이 설립한 '엄홍길 휴먼재단'이 추진중인 히말라야 휴먼스쿨 건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에베레스트산 길목 4060m 고지에 건립된 1호 학교를 시작으로, 2011년 2월에는 2호 학교 준공, 올해 석가모니 탄생한 지역인 नेपाल 톨루지역에 3호 학교가 건립됐다"며 "이어 안나푸르나 산악지역의 트레킹 시작 지점에 4호 학교가 건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홍길 휴먼스쿨은 밀레와 코이카(KOICA)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엄홍길 대장과 원정대원들이 지난 25일 첫 산행을 시작하기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계룡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921년 마르셀레부부 설립 • 1934년 세계최초 프레이 백팩 개발 • 1950년 인류최초 안나푸르나 등반 후원 • 1963년 세계최초 무봉채 끈의 백팩 개발 • 1977년 세계최초 고어텍스 다운자켓 개발 • 1977년 인류최초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반 후원 • 1980년 인류최초 에베레스트 단독 등반 후원 • 2000년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스노우보드 활강 후원 • 2010년 인류최초 안나푸르나 등정 기념 고어텍스 다운자켓 발매

# 자연속을 만나자

산을 당신 뜻대로 하려 하지 마라  
산의 뜻대로 당신이 하라  
그것이 산의 진실이다

91년 아웃도어의 진실-밀레